

수입 과일 전성시대...외면받는 국산 과일

지난해 과일류 수입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나주 등지에서 생산된 배와 사과와 줄고 있는데도 판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수입 과일이 다양해지고 저렴해 넘쳐나는 국산 과일이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일류 수입 총량은 86만3663t으로 전년보다 4.2% 늘었다. 지난해 과일 수입 총량은 2012년(84만171t)을 갈아치우는 역대 최대치다.

2000년만 해도 34만9942t이던 과일 수입 총량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04년 50만t(50만5389t), 2007년 60만t(61만1410t), 2011년 70만t(75만3868t)을 돌파했다.

소비자들의 취향이 다양해지면서 열대 과일 등을 찾는 수요가 늘어난 점이 과일 수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아보카도·오렌지 등 지난해 86만t 수입 역대 최대

사과·배 등 가격 하락 불구 안 팔려 과수농가 울상

품목별로 보면 아보카도 수입 총량이 2915t으로 1년 전보다 92.4% 늘었고 오렌지는 15만4944t으로 38.7% 증가했다. 키위 프루트(29.0%), 멜론(21.1%), 파인애플(13.2%), 두리안(7.2%) 등의 전년 대비 수입 총량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입 증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06년만 해도 수입 총량이 16t에 그친 두리안은 지난해 15.9배나 많은 254t 수입됐고 체리도 1292t에서 1만3820t으로 10.7배 늘었다. 같은 기간 망고 수입은 9.6배, 망고스틴은 8.0배, 멜론은 5.3배 늘었다.

이들 과일엔 미치지 못하지만 파인애플(30.2%), 바나나(30.1%)의 수입 증가세도 적지 않았다. 한국의 주요 과일 수입국은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과일 총량은 38만878t으로, 전체의 44.1%에 달했다. 2위는 미국(24만8천640t)으로 28.8%를 차지했다.

문제는 다양한 외국산 과일이 밀려들면서 국산 과일의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2016년산 사과 생산량은 작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전년 대비 1% 감소한 57만6000t이며, 배 생산량은 단

수 증가에도 성숙면적이 크게 줄어 전년보다 9% 감소한 23만8000t이었다.

2월 사과 도매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평년보다 낮은 2만원 내외이며, 배 2월 도매가격은 3만1000원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낮았다. 설 이후 가격 등락폭이 컸으며, 2월 중순경 사과 가격은 1만9000원, 배는 2만3000원까지 하락했다.

특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2월 말 기준, 사과 대과 저장량은 설 명절 선물용 재고 누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1%, 평년 대비 39% 증가했다.

배는 지난해 폭염으로 대과보다는 중소과 물량이 전년보다 많았음에도 소비부진으로 인한 설 출하 물량의 미판매 재고품이 늘고 있다.

/요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프랑스 대선·지정학적 리스크 불구

주요 기업 1분기 실적 발표 본격화

IT·철강·자동차 단기적 반등 기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며 국내시장이 모처럼 동반 상승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1.45% 상승한 2,165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도 2.58% 상승하며 634포인트로 마감했다.

중국의 사드 우려감이 완화되며 화장품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인 코스닥지수는 주 후반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매도와 카카오의 코스피시장 이전소식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외국인의 매매동향을 강조했다. 주 후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대형주에 대한 순매수 복귀와 선물시장에서 이틀연속 5000계약이 넘게 순매수한 것이 투자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에도 완화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지정학적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 초반 시장은 프랑스대선 1차투표 결과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네명의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매우 근소한 상황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1차투표에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르펜(극우)과 멜랑송(급진좌파)이 결선투표에 진출한다면 프레스트(프랑스의 EU탈퇴) 공포가 확산되며 단기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르펜과 중도성향의 마크롱이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양자대결에서는 마크롱의 당선가능성 높게 예측되고 있어 프랑스 발 유로존 정치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대선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트럼프믹스가 약화되며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국시장에서 3월에도 양호한 경기지표를 보이고 있는 유로존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시장의 부각은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약세압력이 커지면서 국내증시를 포함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리스크 등 지수에 부정적인 이슈가 존재하고 있지만 7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발표 이후 지난주 POSCO, LG화학, KB금융 등 국내 주요기업의 1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주 24일 SK하이닉스, 25일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26일 삼성전기 현대차 KT&G NAVER 롯데케미칼 28일 KT 등 국내 주요기업의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적시즌으로의 전환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적에 따른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차별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대한 중요성을 늘 강조하였으며 특히 외국인의 수급은 지수의 방향성과 변동폭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코스피지수 상승행리와 3월말부터 순매도로 전환하며 조정세로 전환된 코스피지수 흐름을 본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4월들어 주춤했던 외국인투자자들이 21일 모처럼 2000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순매수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정학적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를 IT기업을 중심으로 실적개선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미미한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 주도주인 IT 업종에 지속적인 관심과 외국인 수급개선 된다면 최근 하락폭이 컸던 철강 자동차의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지역 우수농축산물 저렴 판매 금요일직거래장터 개장

농협광주지역본부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최근 광주시 후원으로 지역 우수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금요일직거래장터를 송정매일시장 입구에 개장했다.

농협금요일장터는 오는 12월 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장되며, 장터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 가지, 딸기 등 농축산물 위주로 시중가보다 최고 10~30%까지 저렴하게 판매된다.

또 제철 과일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더욱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장식날에는 장터를 찾은 소비자들에게 회원권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농산물 경품시급과 광주쌀 무료증정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박태선 본부장은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대의 기회를 드리고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요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쌀 소비활성화 청소년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전남지역본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최근 순천복성고등학교(교장 안병권)에서 전남농협, 전남교육청, 농협 순천시지부, 순천농협, 고흥주부모임 등 인직원, 교직원 및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장만재 전라남도교육감, 광영채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윤종식 순천시교육감, 이흥목 전남농협본부장, 서재식 농협순

천시지부장, 강성태 순천농협조합장, 이문자 고흥주부모임순천시지회장, 순천복성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참석자들은 맛있는 전남쌀로 만든 삼각김밥과 우리콩으로 만든 두유 각 1,100개를 들고오는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며,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아침밥의 중요성과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주었다. 전남농협은 매년 도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했다. /요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어촌수산 광역거버넌스협의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윤석근)는 최근 어촌수산분야의 발전방향 등을 고민하는 '2017년 제1차 어촌수산 광역거버넌스협의회'를 한빛 워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견학했다.

이날 현장견학은 전라남도 최정희 해양항만과장, 조선대학교 김경수 교수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세계 20여개국 150여개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등)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기술을 체험하는 행사도 했다. 위원들은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해조류의 생태적, 식품영양학적, 그리고 미래 산업으로써 가치 등 해조류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윤석근 본부장은 "앞으로 광역거버넌스 협의회가 어촌지역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어촌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요광록기자 kroh@

농식품부, 마늘·양파 수급불안 대비 2000t씩 수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여인홍)는 23일 "주요 양념류 품목인 마늘과 양파의 수급불안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수확기 이전에 양질의 국내산 햇마늘과 양파를 각 2000t씩 수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해 신선마늘 생산량은 28만3000t으로 평년대비 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선양파 또한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평년대비 11% 감소

한 112만1000t이 생산될 전망이다.

물품대기는 미래 수확 또는 인수시점의 거래 가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사전 부대비용(Basis)만 입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참가자는 이를 바탕으로 농가와 계약재배 등을 체결함으로써 연중 가격변동이 심한 농산물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요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주 광산구 오선동 진곡일반산업단지 내 위치 일반공업지역 토지 8,367㎡ 건물 2,487㎡ 감평가 61억1천1백 ▶ 최저가 42억7천8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실버타운 요양원 적합부지 토지 3,613㎡ 건물 2,752.77㎡ 감평가 12억9천3백 ▶ 최저가 7억2천4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해태제과 광주공장 남측 일반공업지역 토지 3,653㎡ 건물 3,971㎡ 감평가 39억2천2백 ▶ 최저가 27억4천5백
- ★ [대지]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마리 4,494㎡ 계획관리지역 무인텔건축 최적할지 감평가 10억3천3백 ▶ 최저가 5억7천8백
- ★ [무인텔] 광주 광산구 쌍암동 객실 28개, 토지 1,373㎡ 건물 1,908㎡ 감평가 45억 ▶ 최저가 25억2천만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1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 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상업중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기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 ★ [토지] 전남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전, 답 34,085㎡ 분할매수가 매매가 상당후결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전·대·임야 52,299㎡ 평당5만 (협의가)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